우암학원 창학 73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71 SINCE 1952

FELICE 승원 팰리체
승원건설그룹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1983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2월 22일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농어촌에선 공보의 오는날 맞춰 아파야 하나”

전남 농산어촌·섬 지역
공중보건의 절대 부족
보건소·보건지소 진료 공백
전문의·간호사 부족도 심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지역 공공 의료서비스의 질적(質的) 수준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전남은 내·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5개 필수과목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전문의 수 등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이름을 올리는 ‘단골 자치단체’로 분류된 지 오래다.

공공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공보의)가 고질적으로 부족한 탓에,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상주 의사가 없는 경우도 많아 만성 질환에 시달리는 고령층 사이에서는 ‘공보의 오는 날짜에 맞춰 아파야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공공 간호 인력 부족도 심각한 형편으로 장학금을 주고 공공 의료 2년 이상 의무 복무할 간호대 재학생을 확보하는 계획을 추진중이지만 만성적 간호인력난 해소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에 들어가는 전남지역 공보의 250명(의과 110명, 치과 52명, 한의과 88명)이 새롭게 편입됐다. 이들은 오는 17일부터 본격적 업무에 들어간다.

전남의 경우 올해 3년차로 복무가 만료(174명)되거나 타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공보의(101명) 등 275명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남에 편입되는 인원은 252명(신규편입 250명·근무지 전입 2명)에 불과해 23명의 빈자리를 채우는 방안이 없어 전남도가 고민하고 있다.

특히 의과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

새로 편입된 의과 공보의는 110명인데, 3년 복무가 만료되거나 타 지역으로 옮긴 인원은 145명. 올 들어 새로 전입한 인원(1명)을 포함하더라도 34명이 부족한 형편이다. 지난해도 의과 공보의 21명이 부족했던 만큼 55명이 필요한 공공의료 현장의 공백이 생긴 셈이다. 다만 치과와 한의과는 5명, 6명 늘어날 전망이다.

전남도는 도서지역과 구례·곡성·완도의료원 내 전문의 공백 여부를 감안하면서 응급의료기관 등 배치 우선 순위를 따져 조정할 계획이지만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전남도가 최근 전남도의사회, 강진의료원, 해남종합병원, 공보의 대표, 시·군 보건소장 등과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지만 현실적 대안을 찾지 못했고 장기 대책만 수렴했을 뿐이다. 공보의 복무 기간 단계적 단축, 섬 주민 응급의료 및 야간 근무인력 배치 기준 변경, 응급 취약지 병원 운영 현실을 반영한 당직근무 지침 변경 등의 제도 개선, 진료 실적이 저조한 보건지소 통·폐합 운영, 출향인 은퇴의사 활용 등 당장 적용하기 쉽지 않은 게 대부분이었다.

결국, 현장을 메울 인원이 부족하다보니 ‘덜 심각한’ 현장의 의료인력을 빼서 14일까지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상태다. 우선적으로 응급의료기관에 배치할 전문의나 공보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분산 배치된 공보의의 순회 진료 구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당연히 지역민 불편이 불가피하고 공보의들의 진료 구역 차이로 인한 항의성 민원도 쏟아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전남지역의 열악한 의료 실태는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5개 필수과목의 지역별 의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은 5개 필수과목 모두 평균 미만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해 기준 전국 광역시·도별 종합병원의 인구 10만명당 필수진료과별 전문의 수와 전국 70개 중진료권 지역책임의료기관의 필수과목 개설률을 분석해 위료취약지를 분류했다. 목포시의료원, 순천의료원 등은 의료법상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은 필수진료과목을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배치해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필수 의료 의사를 찾지 못하면서 빚어진 일로,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최소 1000명 증원 등의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간호 인력난도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공의료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간호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해야 하지만 전남 농어촌지역의 간호인력 부족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강진의료원은 간호사 정원이 76명이지만 현원은 68명에 불과, 충원률이 89.5%에 불과하다. 목포·순천시의 경우 도심 지역이라 사정은 나은 편이지만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순천의료원은 지난해 정원이 117명이지만 현원은 113명으로 만성적 간호 인력 부족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 후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전남도 자체 대응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지역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누리호 5월 24일 3차 발사

실용위성 처음 싣고 우주로
예정 시간은 오후 6시 24분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5월 24일 3차 발사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발사 예정일을 5월 24일로, 발사 예정 시간은 오후 6시 24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누리호 3차 발사를 위한 준비 상황과 위성 탑재 일정, 최종 시험 계획, 기상 등 발사 조건을 검토해 발사 일정을 결정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기상 등에 의한 일정 변경 가능성을 고려한 발사 예비일은 5월 25~31일로 결정됐다.

발사 예정 시간은 주요 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위성 2호 임무와 수행 궤도를 고려해 오후 6시 24분 기준 30분 내외로 확정했다.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목표 고도가 550km 태양동기궤도로, 이 고도에서 위성이 항상 태양 빛을 받으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사 시점을 정한 것이다.

목표 고도가 700km던 기존 누리호 1차 발사는 오후 5시, 2차 발사는 오후 4시에 이뤄졌다.

누리호에 탑재될 위성은 차세대 소형위성 2호와 한국천문연구원의 도요샛 4기, 민간기업 져스텍·루미르·카이로스페이스 위성 3기 등 8기로 이들 위성은 최종 환경시험을 시행 중이다

이번 3차 발사는 누리호에 본격적으로 실용급 위성을 탑재해 발사하는 첫 임무로, 지난해 10월 누리호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 공동 운용 역할을 수행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일부 5·18단체-광주 시민단체 갈등 해법은? ▶6면

길이 삶을 바꾼다 - 국도 27호선 벌교~주암 ▶11면

KIA 위기의 정해영 “시간이 약이다” ▶18면

尹대통령 미국 방문 때 국내기업 100여개사 동행

한미 기업인 네트워크 모색
다양한 경제 행사에도 참석

이달 하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때 100개 이상의 국내 기업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전망이다.

1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때보다 더 많은 기업을 선정해 초청할 방침이다.

이번 국빈 방미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경제 안보인 점을 고려, 글로벌 공급망 협력과 첨단산업 관련 업체를 위주로 대상 기업을 추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윤 대통령 방미 기간 한미 양국 기업인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다양한 경제 행사에 참석하게 된다.

전경련 카운터파트로 경제 행사를 준비 중인 미국 상공회의소가 인텔, IBM, 퀄컴, GM 등 주요 미국 기업들을 워싱턴 DC로 대거 초청할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4대 그룹 총수 등 주요 인사들은 오는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백악관 국빈 만찬에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경련은 한미 첨단산업 비즈니스 포럼, 첨단산업·에너지 분야 양해각서(MOU) 체결식,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등의 행사가 예정돼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국내 중소·중견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이 현지에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행사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4건 이상의 경제 행사가 마련되는 셈이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The new EQS SUV
당신이 찾던 럭셔리의 미래.
This is for pioneers.
MERCEDES-EQ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QE 3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4.3(도심: 4.5, 고속도로: 4.1) 1회 충전거리(km) : 471, 공차중량(kg) : 2355, 배터리 용량(kWh) : 88.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양 및 구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